

영암군 4개 기업 340억 투자협약 실현

국내 유일 배터리 소재 제조 업체 등 유치
신규 일자리 400여명 지역경제 활로 기대

전남도와 영암군이 국내 유일 배터리 소재 제조 기업 등 4개 기업과 총 34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남 군청 도선실에서 박주정 케이씨㈜ 대표, 김연옥 ㈜에스엔비 대표, 김천규 아주푸드㈜ 대표, 김태호 농업회사법인 영암식품㈜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기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간 경제전쟁 격화로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는 시점에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케이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대불산단 입주기업인 케이씨㈜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인 고성능 배터리 제조의 필수 소재인 보헤마이트를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양산, 경쟁력과 자생력을 겸비한 중견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 수요 급증으로 기존(1.1μm)보다 개선된 고균질의 미립(0.3~0.7μm) 보헤마이트를 생산하기 위해 138억원을 들여 대불산단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보헤마이트는 SK이노베이션, 두산전자, 삼성SDI 등에 공급한다.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입주하는 ㈜에스엔비, 아주푸드㈜와 농업회사법인 영암식품㈜은 지역 농축산물을 원료로 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한다. ㈜에스엔비는 과즙음료, 냉동도시락, HMR(가정간편식) 등 식품 가공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4,148㎡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하며, 3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아주푸드㈜는 7,467㎡ 부지에 70억원을 투자해 오리 부산물 혼제·개별포장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생산품의 80%를 중국으로 수출하며, 20%는 국내 중국식품 전용 판매점 등으로 납품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 영암식품㈜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쌀, 무화과 등을 혼합한 즉석떡국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연간 쌀 1,840톤, 무화과 95톤 사용으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본격 생산을 앞두고 32억원을 투자해 1,320㎡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한 신규 일자리는 402명이며,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율은 62%에서 76%로 오르게 됐다.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는 조성원가(3.3㎡당 31만2,642원)의 64% 수준인 19만9,000원에 분양해 투자 예정 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제18호 태풍 '미탁' 복상에 대비한 대응상황을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 태풍 '미탁' 대비 돈보였다

김영록 지사 "우수사례, 모든 지자체 알려라"
신안군의 태풍 피해 대비가 전남 지자체의 우수 사례로 꼽혀 주목받고 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던 지난 2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형 이동양수장비를 배치하고 배수로, 담수로, 저수지 등 사전 방류(저수지 수위 50% 유지)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배수갑문 이물질제거와 응급 준설 굴삭기를 배치하고, 소형어선과 부잔교 도고 분리 및 육지 인양을 마쳤다"며 "증·양식시설 중 파도 영향을 직접 받는 1~2번째 시설을 중점적으로 결박하고 김 채묘시설은 최대한 육지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아울러 "바닷물에 의한 작물 피해는 시간이 많이 흘러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피해입력 기간(10일)이 너무 짧다"며 "NDMS(재난관리포털시스템) 입력기한을 7일 이상 연장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신안군의 태풍 대처가 잘 준비돼 있다"며 "태풍과 강풍, 폭우 등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남 모든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 자연재난과는 이날 즉시 전남 모든 지자체에 18호 태풍 '미탁' 대비 신안군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보했을 직접 받는 1~2번째 시설을 중점적

진도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수도권 절임배추 소비자 대상

진도군이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팜파티를 연다. '감장하러 가세~!'란 주제로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도애절임배추 농장에서 열린다. 이번 팜파티는 그동안 절임배추를 이용했던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울, 경기 소비자 70여명을 초대해 행사 당일 초청객들과 함께 진행한다. 첫날에는 감장 체험, 배추 부침개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을 한다. 둘째 날에는 운림산방, 명랑해전 승전지 견학, 전복잡기 체험 등을 개최한다. 팜파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 만들기 체험행사로 이뤄진다. /진도=박병호 기자



제28회 초의문화제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해남군청 앞 군민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다도해, 내 도시락을 부탁해'
완도 탐방객 배달 서비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10일부터 완도 정도리 구계등에서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인 '다도해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운영한다. 탐방객이 예약하면 탐방로 입구까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바다경관을 조망하며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 희망자는 카카오톡에서 '다도해,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한 뒤 친구추가 채팅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이용 하루 전 오후 1시까지 주문 가능하다. 메뉴는 완도 바다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도시락' (뽕밥, 전복구이, 기타 밀반찬)과 '빙그레 도시락' (뽕밥, 생선구이, 기타 밀반찬) 등 2가지로 가격은 각 1만원, 8,000원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해남서 '다인들의 큰 잔치' 열린다

18일부터 초의문화제... 찾자리 경연 등 다채
전국 다인(茶人)들의 큰 잔치인 초의문화제가 해남에서 열린다.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는 9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해남군청 앞 군민광장(해남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28회 초의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의문화제는 조선후기 선(禪)과 다(茶)의 세계가 하나라는 다선일여(茶禪一如) 사상을 주창하며 차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의선사(草衣禪師)의 다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올해는 '초의와 차 한잔'이란 주제로 해남전국차도구공모전, 전국다식경연대회 초의문화제 회장·한국차학회 고문)가 선정됐다. 부대행사로 차 관련 상품 전시·판매, 떡차만들기 체험과 도자기기물레 체험, 다식체험, 해남 국전작가들의 부채·다포그리기 등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차도구공모전과 전국다식경연대회에 입상한 작품을 전시하고, 들차회에 참석한 차 단계에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들차회는 전국 20여개 차 단체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만든 녹차를 비롯해 말차, 황차, 연근차, 병잎차, 꽃차, 청태전차 등의 다양한 향과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남=박병호 기자

완도 '빙그레공원' 비탈면 손 본다

사업비 3억 투입 사고 예방·경관 개선
완도군이 빙그레공원 비탈면 낙석사고 예방과 경관 개선에 나선다. 완도군은 9일 "빙그레공원 그린폴(Green-fall) 조성사업을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월 전남도가 주관한 '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완도읍에는 빙그레공원은 주요 상권과 해안로를 연결하는 완도읍의 중심지 근린공원이다. 하지만, 공원 비탈면의 무성한 잡목로 경관 훼손이 심하고 암석이 노출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군은 사업을 통해 비탈면의 낙석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과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조형 벽면을 조성한다. 수목 식재와 야간 조명 설치로 도심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완도=최규욱 기자

해남 고소득 수산물 '해삼' 자원육성 박차

해남군이 고소득 수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해삼 자원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달 중 송지면 통호해역 1.2ha에 해삼 서식기반 조성을 위한 자연석 투석을 실시한다. 사업비 3억7,500만원을 투입해 1㎡ 크기의 자연석 5,080㎡를 투석하는 이번 사업은 아형성으로 낮 동안 은신할 수 있는 바위아래나 해초류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해삼의 습성에 맞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송지면 통호해역은 지난 2017년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 서식 적지로 선정된 곳이다. 영양분 풍부한 갯벌과 깨끗한 환경으로 천혜의 해삼 양식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또 다음달 중 2g이상인 해삼종자 15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으로, 2년 후 150g 이상으로 자란 큰 해삼을 채취해 주민 소득화할 계획이다. /해남=박병호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영암군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영암군은 최근 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 집 가족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영암군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관내 40개소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2,000여명이



목포시-해군 노적봉함, 자매결연 체결

목포시와 해군함정 노적봉함은 최근 삼학부두에서 우의를 증진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한준희 함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진도 황혼의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

진도군 의신면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발적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도로변 2곳에 황혼의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했다. 9일 의신면에 따르면 마을 주민과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함께 관광객에게 힐링 공간과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에 메리골드, 사루비아 꽃을 식재했다. /진도=박병호 기자